

대학 창업활동의 필요성과 문제점

박 승 권 | 한양대 창업지원센터 기술지원실장

대학교육과 벤처열풍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이사 혹은 사장 등으로 승진하거나,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의 고시를 합격하여 장·차관 등과 같은 고등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전통적인 한국인의 출세관으로 생각해왔다.

1997년 IMF 어전만 해도, 창업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필자의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만해도 주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망했다는 사람의 얘기가 수도 없이 들려왔고, 망했을 때의 비참한 모습도 교훈처럼 주변 어른들이 들려주었다. 부도가 나 집안을 다 들어먹었다느니 처가까지 폐가망신했다느니 지금 빚에 몰려 숨어 다닌다는 등의 얘기였다. IMF 시대를 맞으면서 창업은 커녕, 갖고 있던 업체마저 처분하지 못해 안달하는 시대가 199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실제로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우량기업들이 아주 싼값에 처분되었고, 그것을 헐값에 구입한 사람들은 현재 적지 않은 부를 누리고 있다. '부실기업 정리, 부실금융 정리, 대규모 정리해고, 부도, 워크아웃, 화의, BIS 비율, MMF' 등 평소에 일반인이 접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생

소한 경제용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 암울한 시절이었다.

한국의 벤처열풍은 선진국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 것이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마치 한겨울에 강한 여름 바람처럼 전국에 불어닥친 것이다. 벤처라는 단어는 미국, 또는 이스라엘에서나 알려져 있었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생소했었다. 실제로 국내에 벤처라는 바람이 불도록 한 것은 신정부가 들어선 다음으로 국가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고용안정이라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사명에 접한 후 타개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 당시 국회에서 나온 케치 프레이즈는 '벤처기업 10,000개 창업'이었다. 취업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나 실직된 사람들이 스스로 창업하여, 스스로 고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고용안정의 결과를 낳게 할 것이며, 창업된 회사가 성공할 경우 더욱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며, 위기 상황의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어떻게 보면 무척 단순한 논리같지만, 그 당시 놀란 가슴을 쓰다듬고 빈 주머니에 두손을 꽂은 채 용기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국가가 그 당시 벤처진흥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내세웠는데, '대학 내 창업동아리 지원, 대학 내 정보통신관련 벤처기업 지원, 중기청의 창업지원센터 지원, 지역 벤처센터 지원, 우수 벤처센터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병역

특히, 대학 내 실험실 창업, 대학교수의 벤처 겸직 허가, 지원자금 등 수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다시 말해, 벤처기업이 가장 손쉽게 저 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였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은 수많은 일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 맨손으로 창업했던 많은 업체들이 최근에 와서 코스닥시장 상장에 성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규모가 엄청난 수십 억대에서 수백 억대, 혹은 수천 억대의 돈을 우리 주변의 형님, 친구, 선후배들이 벌어들이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즉 전통적인 출세관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기업체에서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고등 공무원에게까지 확산되어, 사무관, 국장, 심지어 전직 장관까지 벤처기업으로 몰려들게 된 것이다. 국내 명문 S대나 K대의 교수들마저 교직을 버리고 벤처기업에 합류하였고, 모 대기업의 핵심 인력 3분의 2가 회사를 그만두고 벤처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무려 30%의 파격적인 월급 인상을 최근에 단행한 바가 있다.

특히 대학 내 벤처지원을 국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였고, 벤처열풍의 사실상의 진원지는 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벤처에 성공한 선배들을 대학으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어, 그들의 성공한 무용담을 놀란 토끼눈으로 청취하던 많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출세관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나라의 위기 상황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작되었던 벤처지원은, 스스로 자생력이 생겨 놀라운 속도로, 과열 혹은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멈출 수 없을 정도의 동적인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대학교육은 졸업 후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순수분야도 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전통적인 출세관과 사회적 인력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알파한 지식보다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초 및 이론중심의 교육이었으나, 벤처열풍은 당장 쓸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분야로 학생들과 교수들을 몰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허용된 교수들의 실험실 창업 및 겸직 허용 등으로 교수들마저 상당히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명문대학에서 중하위권 대학까지,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교수들 사이에서는 실험실 창업 및 졸업생 중심의 교외 창업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사장님 교수, 이사님 교수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교수와 사장, 혹은 이사의 업무를 모두 다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벤처창업을 겸직하고 있는 교수 중에 아직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조만간 성공 사례가 생겨날 것이고, 이 경우 더 많은 교수들이 순수연구보다는 벤처로 뛰어들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새로 생겨난 수많은 벤처기업들은 유명대학 교수를 자문 혹은 고문교수로 모셔가기에 여념이 없고, 유명교수는 수많은 벤처를 위한 자문 업무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벤처기업 열풍이 대학교육을 크게 변형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나쁘다고만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명문대에서는 교수의 겸직 허가 및 창업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동부나 중남부의 보수적인 대학은 겸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진보적인 서부에서는 수많은 대학에서 교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스텐포드대학이나 MIT와 같은 진보적 대학의 공대 교수들 중 상당수가 벤처에 참여하여 백만장자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학생들이 어디에 쓰일지도 모른 채 막연히 배우는 것보다는 보다 확실한 동기의식을 갖고 배우는 것이 학습효과가 높을 것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너무 유행을 따라가고 급조된 교육을 하면, 선진국 대학에서 수십 년을 들여 향후 쓰일 지도 모른 채 눈가리개를

하고 오로지 앞만 보고 뛰는 경주마처럼 연구하여, 그 중 소수의 연구가 성공하여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 것과 달리, 뒷북만치며 남들 따라가기 바쁜, 선진 기술을 수입하여 쓰기에만 급급한 중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면은 대학교육이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아탑에서 안주한다는 비난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뜨거운 창업열풍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로 필요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히 공대 학생을 위한 경영, 회계, 마케팅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공대 졸업생이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경영학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 회사를 경영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현재 이 분야를 필수 교육과정으로 하는 공대는 거의 없다. 창업을 하겠다는 꿈을 가진 대학생들조차 필요성을 직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학에서의 창업활동 현황

1998년도 신정부가 들어선 후, 대학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이러한 권장에 대하여 대학들의 초기 반응은 그렇게 열광적이지 못했다. 대학의 전통적인 사명과 창업지원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현재, 많은 대학에서 창업지원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창업지원으로 대학 내 학생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창업지원된 업체들이 속속 성장하여 큰 규모의 투자를 받고 번듯한 공간을 얻어 속칭 테헤란밸리로 이전하였고, 더구나 이들 기업들이 대학에 기부하는 금액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주식의 1% 이상을 기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의 기업체가 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하면서 기부하는 금액은 2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들 기업이 졸업한 후 회사가 망한다면, 기부된 1%의 금액이 휴지조각이겠지만 상상할 가능성을 따진다면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 창업된 회사가 2년 내 성공적으로 졸업할 확률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30~60%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창업지원 혹은 벤처지원이 적극적이고 성공적일 때, 대학교에 유입될 수 있는 제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창업지원은 더 이상 정부에 이끌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향후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더 이상 소홀히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심각한 공간문제로 창업지원이 아니더라도 절대 공간 부족으로 대학 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심한 대학은 교수실이 부족하여 여러 교수들이 한곳에서 수업준비를 할 정도이고, 연구공간도 모자라서 한 연구실을 하루종일 다른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창업지원센터가 대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대학 내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상상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명문대학이 창업지원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3월 현재, 대학별 창업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 신기술 창업네트워크 보육기업-82개(교내 40개)
- 총동문회 약 50억원 규모의 엔젤펀드 조성 중
- 중기청 및 무한기술투자 등 외부기업-50억원 대학 기부
- 유전공학연구소 창업보육센터 4억 5천만원(중기청 지원금액) 및 신기술 창업네트워크 5억 4천만원(중기청 지원금액), 외부 자금으로 BI(Business Incubation)전용 건물 건립 중

- 서울대 연구처-대학 내 조성 중인 연구공원에 대규모 BI빌딩 건립 예정(약 100억원 규모)

광운대

-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보육기업-17개(현재)
- 중기청 창업지원센터-20개(올해 예정): 대학 4억 5천만원 과 중기청 5억 5천만원, 도합 10억원
- 올해 하반기 1개 기업 코스닥 진출 예정

고려대

-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현재 15개
- 상반기 중 20개 기업 추가 입주-총 35개 기업 보육 예정
- 올해 하반기 1개 기업 코스닥 진출 예정-4월에 실리콘밸리 진출 확정

연세대

- 현재 우수한 환경의 과학관 건물에서 21개 기업 보육 중-연건 평 1,150평
- 대학 자체의 벤처펀드 조성 중-약 50억원
- 보육센터 전담 직원 4명

인하대

- 현재 15개 기업 보육 중
-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운영비 지원-1억원/년
- 연건평 1,000여 평의 BI전용 건물 건축 예정-동문출신 새빛 창업투자자금, 약 30억원 펀드 기부 예정

한양대 : 서울

- 현재 6개 기업 보육 중-상반기 중 10여 개 추가 보육 예정
- 한양벤처기금 10억원 지난해 조성-올해부터 사용 예정
- 올 하반기 창업보육센터의 한양종합기술원(HIT)으로 확대 이전
- 한양벤처동문회 4월중 창립 예정-학교와의 공동사업 기획 중
- 성동 한양벤처타워(지하철 2호선 독삼역 주변)-1999년 7월 개소, 현재 30여 개 기업체 입주

한양대 : 안산

- 대학, 정동부, 산자부, 중기청, 안산시, 경기도 등 각 주체들의 지원 활발
- 대학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안산엔젤클럽펀드 조성
- 테크노파크, BI센터 등 상반기에 100여 개의 벤처기업 보육할 수 있는 건물 준공 예정

이 밖에 경북대 테크노 콤플렉스,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운영과 대학 최초의 벤처캐피탈(100억원)을 유치 하였으며, 수원대가 창업지원을 위하여 대규모의 건물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대학 창업보육의 활동사례

창업보육을 대학에서 최초로 하기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70년부터 이미 대학 내에서 창업보육을 시작했다. 미국의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가 미국 주요 연구중심 대학의 기술혁신센터(Innovation Center)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 최초로 창업지원을 하기 시작한 대학은 유타 대학, 렌셀러 공대(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조지아 공대(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이며 이들 대학은 현재까지도 BI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이 일어나기 시작한 배경은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은 북동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1970년 즈음 산업개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많은 기업이 남부로, 혹은 서부로 이전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북동부에 발생하게 되었고, BI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도에 극에 달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제는 상당한 리세션을 직면하게 되었다. 1984년에 미국의 중소기업청이 일련의 지역회의와 출판 활동을 통하여 창업보육의 개념을 증진시키기 시작

하였고, 이로 인해 창업된 업체 수가 그 당시 수백 개로 늘어났다.

미국 고용인구 중 5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몫은 30년 전 20%에서 오늘날 10% 이하로 격감하였다. 1990년 초 대기업들은 대략 400만개의 일자리를 없앴고, 소기업들에서 8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소기업혁신(Small Business Innovation)정책'이 성공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기업으로 출발하여 성공한 미국의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의 전례 없는 호황기를 10년 연속 끌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예를 들자면, America On Line, Amazon, Cisco Systems, Netscape, Yahoo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의 시장가치를 합하면 200조원이 넘고 이들 기업들은 모두 198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미국의 신기술 창업보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위 벤처 캐피탈리스트(Venture Capitalist), 혹은 엔젤일 것이다. 이들 엔젤들이 미국 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창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거의 지역적 제한 없이 발생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Research Triangle과 Washington 북부지역과 보스턴 남부의 보스턴밸리, 텍사스 오스틴지역 등이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벤처지원이 Stanford의 Silicon Valley라고 누구나 쉽게 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와 같이 대학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동반자 형태로 벤처창업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 대학과 지역, 그리고 창업하려는 창업가가 함께 동반자 형태로 발전시킨 곳은 New York주의 Troy시에 위치한 런셀러 공대(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다. 한국에서 지원받는 대학 내 창업모델은 이 형태를 닮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한다. 1980년 소규모 인큐베이터로 시작

한 런셀러 공대의 창업지원은 현재 10만평방 피트의 창업보육 공간 및 졸업 후 시설, 그리고 약 150만평에 달하는 리서치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공간에서 바로 테헤란밸리로 옮긴 회사를 방문하여 에로사항을 물어보면 '졸업 후 시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즉 대학 내 창업보육시설이 온실이라면, 졸업 후 시설은 야생과 온실의 중간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을 떠나 바로 테헤란밸리, 혹은 사회로 나가면, 생각지도 않던 문제들이 많다고 한다.

런셀러 공대의 인큐베이터 내에는 110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고, 이들 회사의 3분의 2는 대학교수와 학생이 창업자이다. 이 인큐베이터에 속한 회사가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리서치파크로 졸업해나간 현재 55개 회사 중 90%가 대학과 관련된 사람이며, 대부분이 이 대학 졸업자이고, 이들 회사들이 현재 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런셀러 공대의 발명 결과는 리서치파크를 통하여 상업화 되어왔고, 학생들은 인큐베이터와 리서치파크 내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생동감 있는 실험실에서 살아있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수들은 더욱 실용적인 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학생들은 취업 및 창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졸업 전에 살아있는 실험실을 통하여 학비 조달과 살아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지역 내에 많은 수의 업체가 개업되어 고용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조세 기회를 주니, 명실공히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덕을 보는 훌륭한 창업모델인 셈이다.

미국의 국립기업 인큐베이션협회(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의 1997년 발표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하나의 미국 인큐베이터가 입주업체와 졸업생들에게 46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분사 효과로 234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했다. 더구나 인큐베이터 졸업기업의 87%가 여전히 활동 중에 있고, 84%가 인큐베이터가 속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혹자는 벤처정신이 우리의 국민성과도 잘 부합된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벤처가 성공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두번째로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면, 한국은 아마도 세계 3위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평화협상 등을 통하여 긴장이 완화되자 국방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대량 실직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실직한 고급 인력을 위하여 막대한 벤처지원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많은 군사기술이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가지원이 워낙 달콤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던 유대계 미국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가서 사업을 시작할 정도였다. 현재 이스라엘 벤처기업이 성공하여 미국 나스닥(Nasdaq)에 등록된 회사가 50개가 넘는다고 한다. 국내에서 미국 나스닥에 등록된 회사는 현재 10개가 안되니, 이스라엘의 벤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다.

일본엔 벤처정신이 없다. 우리의 전통적인 출세관과 그들의 현재의 출세관이 일치하고, 오로지 자기가 속한 기업에 평생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은퇴하는 것이 그들의 기업윤리인 것이다. 최근 일본에 가보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한국보다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정보통신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개인 수입이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1990년대 초와 같은 기업풍토와 취업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일본이 근대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주변 동양국보다 빨리 개화하여 강대국이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개화를 하지 못하여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과 같이, 벤처기업 개념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 하나의 대학의 운명, 하나의 국가의 서열을 바꿀 정도의 커다란 현대판 개화가 아닐까 생각하며 국내 벤처열풍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 같은 직감과 바람을 가지며 이 글을 마친다. **박승권**

박승권

한양대 전자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전자과 공학석사, 미국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전자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Tennessee Technological University 전자과 부교수(Tenure 취득)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양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 분야는 디지털통신시스템, 케이블통신, 신호처리 분야이고, 주요 저서로는 『PCS 기술』, 『가입자망 기술』 등이 있다. 논문은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지에 70여 편을 발표하였다.